

소프트웨어 유감

SW(소프트웨어)는 컴퓨터의 필수요소이다. SW는 인간의 두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. 공장도 필요없고 공업용수도 필요없이 생산할 수 있는 知的生産物이다. 진실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것이다. 인재만 있으면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산업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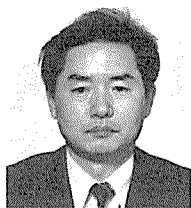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는 우수한 두뇌의 인적 자원이 많다.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훈련시키느냐가 SW 산업정책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.

응용기술 보다는 원초 기술을 교육시켜서 기본과 이론부터 습득한 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면 그 다음은 아주 풀어나가기가 쉽다고 생각한다.

이런 맥락에서 SW만을 24년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시키고 하는 전문기간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.

이 기관에는 세계적인 학자들도 초빙하여 원초이론부터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OS, DBMS, 통신용 SW, 유틸리티 등 세계에 내놓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SW들을 개발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? 이것이 한낱 기술자의 꿈인가? 아니 실현될 수 있는 꿈이라 생각한다.

문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SW이다. 그 SW가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, 모순되고, 획일적이면 그 머



孟哲顯

한국유니시스(주) 상무이사

리로 만들어지는 '제도라는 SW' 또한 희망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.

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SW부터 정비하고 개조하여 나가면 우리나라의 SW산업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훌륭한 시스템하에서 운영되리라는 것과 정말 세계속의 '돋보이는 한국'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.